

/ 전남도 실·국장 프로필 /

국제통상·기획업무 밝은 '젠틀맨'

고영길 기획관리실장



영국신사라고 불릴 만큼 '젠틀'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 영어에 능통하며, 국제통상·기획 업무에 밝은 노력파다.

▲광주(56) ▲광주일고, 성균관대, 영국 버밍햄 대학원 ▲행시 22회 ▲국제통상협력실장 ▲광양부시장 ▲문화환경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의회사무처장

대인관계 원만, 솔선수범 리더형

이종범 의회사무처장



솔선수범하는 온화한 리더형으로 따르는 부하들이 많다. 대인관계가 원만해 의회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여수(53) ▲경고고 ▲서울대 심리학과 ▲행정고시 23회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관광문화국장 ▲세종연구소과장 ▲목포부시장

경제통상·해양수산 밝은 기획통

김동현 행정지원국장



성실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직원들 사이에 인망이 높다. 경제통상·해양수산 업무에 능통한 기획통이다.

▲순천(47) ▲전주고 ▲한양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29회 ▲기획계장 ▲기업경제과장 ▲비서실장 ▲해양수산환경국장

기획력·업무 능력 탁월한 선비형

정인화 정책기획관



기획력과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 상하관계가 매끄럽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 주변의 인망이 높다.

▲광양(50) ▲전남대 행정학과 ▲행시 26회 ▲한국관광공사 과장 ▲광양행정개발본부장 ▲공보관 ▲감사관 ▲관광투자유치정책보좌관

감사·재정 밝은 지방행정 전문가

정화균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감사·재정 업무에 오래 근무한 지방행정 전문가. 해남부군수를 맡으면서 군수 공석 상태임에도 조선산업 기반정책, 화원관광단지 조성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영광(57) ▲조선대법학과 ▲감사담당 ▲의회사무국장 ▲영광부군수 ▲예산담당관 ▲해남부군수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북핵 신고 이어 불능화도 이상기류

北 "경제적 보상 이행 늦어 연내 힘들다"

북한 비핵화 2단계 이행 시한이 나올 앞두고 다가왔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에 이어 핵 불능화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6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많은 경제적 보상의무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은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방콕메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된 지난 6월 이후 순조롭게 진행돼 오던 북핵 프로세스에 이처럼 찬 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핵폐기 2단계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의 발언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신고서에 포함시

킬 지 여부를 놓고 지연되고 있는 핵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던 불능화마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영변 현지에서 불능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폐연료봉 인출 작업을 제외한 불능화 조치는 연초까지 상당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현 부국장의 발언이 일단 염포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등이 북한에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 제출을 재촉하자 코너에 몰린 북한이 자신들도 '할 말이 있다'며 일종의 반격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언급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신고·불능화 완료까지 지원하기로 한 중유 45만과 중유 50만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 중 현재까지 중유 15만과 중유 수만에 해당하는 철강재 5천10t이 제공됐을 뿐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에너지 지원 속도를 보고 신고·불능화를 하겠다'는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자는 "지난 8월 경제·에너지 실무 회의에서 북한이 에너지 지원이 비핵화 조치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충분히 에너지 제공이 늦어지는 데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 남북관계 뉴스 1위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통일부가 네티즌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10.2~4) 개최가 올 한해 남북관계 최대 뉴스로 꼽혔다.

통일부는 지난 17~26일 부내 직원·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일반 네티즌 등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남북관계 10대 뉴스를 조사한 결과, 정상회담이 767표(복수 선정 가능)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2위는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및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691표), 3위는 남북대화의 제도화·정례화·체계화(507표), 4위는 6자회담 진전과 북핵 폐기 과정의 순조로운 이행(458표), 5위는 개성관광 개시(452표) 등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어 6위에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390표)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서해평화지대 설치 집중 논의

추진위원장에 南 백종천, 北 박송남

서해평화위 오늘 개성서 개막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남북 정상 간 합의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8일부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의사무소에서 이틀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남과 북은 ▲해주특구 건설 ▲해주항 개발·이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 공동어로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한다고 통일부는 27일 밝혔다.

남북은 특히 해주경제특구 조성,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구역 조성,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4대 분과위의 설치 및 향후 운영 계획, 그리고 각 사업별 현지 조사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양측 위원장은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박송남 북한 국토통일부 차관들이 각각 맡는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측 대표단에는 고경민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김영과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진홍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박상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김춘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유형호 통일부 국장이 포함됐다.

또 북 대표단원으로는 박호영 국토통일부 차관, 박정순 국토통일부 차관, 김일영 수산성 국장, 강종관 육해군성 기사장, 림통철 조평통 참사, 소속 미상의 김광운씨 등이 참석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공동어로구역 조성 ▲해주 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 통과 등 5가지 사업을 통해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남북은 10월 제2차 정상회담 때 이 같은 구상에 합의한 뒤 지난달 총리회담에서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위 구성안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가운데)이 지난 26일 아이오와주 마운트 플레츠트에서 유세중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딸 첼시와 함께 무대 위에 서 있다.

민주 힐러리-오바마 각축 공화 허커비 돌풍

美 대선 레이스 개막 일주일 앞으로

2008년 미국 대선 레이스의 개막을 알리는 아이오와주 코카스(당원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공화 양당 모두 후보 간의 당락을 점치기 힘든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위 구성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극심한 혼전을 벌이고 있고,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도 맹렬한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힐러리 의원은 다음달 8일 실시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도 그동안 지켜온 선두 자리를 오바마에게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힐러리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목시장이 전국 지지율에서 여전히 앞서가고 가운데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선두를 넘보고 있고,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돌풍을 일으켜 3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허커비 전 지사는 아이오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롬니를 누를 기세여서 이후 여파가 주목된다.

뉴햄프셔에서는 롬니 전 지사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한 동안 약세를 지속하며 허위권으로 처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최근 조사에서 강세로 돌아서 혼전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Public Introduction / Business Management' course. Includes text: '한국 1위', '개강 1월 2일', '전남고시학원 236-2467'.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course. Includes text: '2차 실기반', '개강 12월 22일', '전남고시학원 236-2467'.

Advertisement for 'Anych' office furniture. Includes text: '고객감동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Anych', '062)942-1814, 1816'.